

“어른의 ‘자리’ 함께 생각해요”

전국최초 노인학대 주제로 연극 공연



부산 옹호복지관의 ‘햇빛연극단’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연극 ‘새는 동지에서 날개짓을 배운다’의 공연 모습.

“맨날 논란 뜨면 아프다고 노래를 하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나이 오십인 나도 여기 저기 아프다고 신호가 오는데 연세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참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와 자꾸 늙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주는 밥 챙겨 드시고 집에 앉전히 계시죠?”
11월 8일 옹호복지관 강당에 마련된 무대에서 연극이 시작됐다. 연극을 지켜보던

옹호복지관 노인대학 학생들은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대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배우들의 대사와 동작을 따라 때론 며느리의 입장도 돼 보고, 때론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노인의 입장에서 웃고 울면서 연극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노인학대’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이번 연극은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김영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연극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새는 동지에서 날개짓을 배운다’는 제목으로 50분간 공연된 이번 작품은 가족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실상을 연극으로 풀어내고 관객들에게 노인학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 연극을 만든 극단은 연극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구성된 연극에 관

옹호복지관 ‘햇빛연극단’ 주축 배역 바뀌며 상대 입장 이해 개금·기장·전포복지관서도 공연

학대예방센터의 ‘오아시스’연극단과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극을 직접 만들었다. 이 같은 시도는 불교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두 기관이 내적 자원을 서로 연계해 보다 풍부한 복지 사업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박동민 연출자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상황을 모아 직접 대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벌어지는 정서적, 언어적, 심리적 노인학대 상황들이 연극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

래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감정이입도 크다. 연출자인 박동민 씨는 “최대한 감정이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노인학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면을 이용했지만 관객들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노인학대 문제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문제로 부각됐다는 방증이다.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는 부산 시내의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 공문을 보내 신청이 들어오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옹호복지관의 공연에 이어 11월 17일에는 양정초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2부 행사로 공연을 연다. 이 밖에도 11월

28일에는 부산 시노인복지관, 30일에는 개금 복지관, 12월 15일에는 기장군노인복지관, 12월 19일에는 전포복지관 등 곳곳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극을 기획한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정성경 팀장은 “연극을 보면서 노인학대를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선악의 양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받고 이해해야 할 가족의 큰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돼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867-911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 성년 됐어요

대불어 20주년 기념식 및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법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불어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린이 포교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한다.
대불어의 이번 전시는 11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포교 전진대회에 서 첫 선을 보였고 11월 25일과 26일 충북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대불어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전

지와 웹진, e-book 시연 등의 행사도 갖는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시연과 3D 영상도 제작 선보인다.
대불어가 2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20주년 기념식은 4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와 함께 열려 현재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은 물론 20년 동안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함께 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25일 3시 50분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어린이의 포교의 터전을 일구어온 이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된다.
20주년을 맞은 대불어가 준비한 선물도 푸짐하다. 10여권이 넘는 앨범 속 에 차곡차곡 간직돼 왔던 20년간의 어린이 포교 활동사진 등을 200쪽 분량의 <어린이 포교 20년사>를 엮어 선물을 한다.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찬불가, 강의 등의 베스트 모음 동영상 CD와 다양한 법회 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불기 2551년 다이어리도 3천부 제작, 배포한다. (051)864-4570 천미희 기자

‘연꽃’ CD 제작, e-book 시연도 10여권 앨범 모아 20년사 정리 법회 프로그램 체험 강의 마련

1923년 음성 스님의 대가 일요법회로 시작된 어린이 포교의 태동부터 전국 조지화 움직임, 대불어의 창립, 어린이 포교 활성화, 어린이 포교 전성기, 미래를 향한 어린이 포교 등 열장의 전시관에 어린이 포교사를 정리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불어의 20년을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하며, 통권 330호를 맞이한 ‘연꽃’지의 발전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983년 최초로 발행된 연꽃 1호지부터 정리 전시한다. 또한 최근 CD로 제작되고 있는 연꽃

“포교 위해 도량·인재불사 원력 모을 것”

부산 흥법사 개원 3주년 문화행사 및 기념법회



외국인문화기행을 통한 외국인 포교, 토요일 휴업일의 토요제학학습 등 앞서는 문화 포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흥법사(주지 삼산)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11월 5일 흥법사가 위치한 드넓은 능원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 법회로 풍성했다.
이날 개원 3주년을 기념하며 흥법사 대웅전에서는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한 법회가 열렸다. 법문에 앞서 삼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흥법사가 이뤄낸 많은 결실들은 모두 장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을 비롯

신도님 한분 한분의 정진 덕분”이라며 “앞으로 포교 도량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도량 불사와 인재 불사를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영 스님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로 부처이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굳건한 믿음의 힘으로 정진을 늦추지 말고 정진해 본래면목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2부 행사로 흥법사 관음연못에서 남순동자 점안식을 병행했으며 오후 1시부터는 잔치 한마당을 열어 개원 3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경내 곳곳에 개원 3주년 기념 나무 연필 전시회, 흥법사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진전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건주 하도명화 보살이 부신불교계 복지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에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사전). (051)508-0345 천미희 기자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통도사성보박물관서 열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는 11월 10-11일 양일간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8회 불교미술사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일 오후 2시 불교 석경 스님의 이침을 따서 제정한 석경학술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강소연 흥덕대 교수의 ‘은불존의 회통, 조선시대 전법양

식의 창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열렸다. 제2회 석경학술상 수상자로는 송은석 리움 미술관 연구원이 선정됐다.
송 연구원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주제의 논문을 통해 아미타 삼존불이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 졌다는 중전의 설을 반박하고, 고려말 조선초에 유입된 중국화한 티베트양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결합하여 창출해낸 새로운 도상과 양식의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지운 스님 자비수관 강좌 부산서도 열기 ‘후끈’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자비수관 수행법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 수심회 주최로 11월 9일 부산 소림사에서 부산 불자들을 위한 자비수관 강좌가 열렸다. 자비수관 법회에 앞서 영도 화방사대원에서는 지운 스님의 다선 강좌도 열렸다.
지운 스님이 직접 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교재를 사용한 자비수관 강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열리는 자비수관 법회는 4주째를 맞았으며, 다선 강좌는 두 번째.
이번 강좌는 6개월 동안 자비수관에 관심이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선과 자비수관은 오후 4시30분과 오후 7시 소림사에서 매월 2, 4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051)413-6261 천미희 기자

창녕 인양사 승정리 동탑제

경남 창녕군 인양사주지 해일사는 국보 34호 승정리 동3층 석탑 보호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탑제를 11월 7일 승정리 동탑 앞에서 봉행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동탑제는 발원문 낭독, 문화유산현장 재창, 추사 순으로 봉행됐으며 부산 장애아동시설 성우원 학생들의 찬불가 합주가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 비교되고 있는 승정리 동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66년 해체, 복원 작업 중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공과 사리병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은아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

성파시조문학상 제정위원회(위원장 정재원)는 11월 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제23회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염동근, 하순희 시인이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성파시조문학상 창시자인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우리는 왜 승가인 대회를 하는가?

- 주지 임명에 즈음하여 -

중앙승가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 원우회,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제대로 된 교육만이 담보할 수 있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안고 승가인 대회를 가진지 3월이 지났다. 종단의 유일한 승려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철회된 한국불교의 미래를 격려하는 지고지순한 뜻이었다.
이러한 순수한 요구와 의사전달을 위해 봉은사에서 승가인 대회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승가인 대회를 통해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의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교육이념이 있는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절이나 빼앗으려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종단 지도부의 안목과 한계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하였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에 매진하여야 할 학인스님들이 나서야 했을까? 살펴보고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상생의 모습은 눈을 찔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종단의 현실이란 말인가. 종단 지도부의 사고에 압입한 것이 더한다.
종단의 지도부가 승가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성을 갖다보니 오늘날의 불교가 도시에서 밀려나는 종교가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신도의 주축을 이루던 노인인구마저 불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 이 땅에서 불교는 제3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 어쩌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이는 타종교와 교육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종단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의 흐름, 사회의 변화, 시대의 요구에 대

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가교육이란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스님이 총무원장스님을 면담하여 학교발전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동문회에서는 『21세기 불교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종단에서 승가교육의 비전을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관심조차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종단을 이끌어 가는가.
중앙승가대는 타종교의 전문교육기관과 경쟁력이 뒤떨어진지 이미 오래이며 지방의 소규모 대학보다도 열악한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종단은 오늘(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승가대 학인들의 학비는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비불교적이며 전근대적인 삼부 천민자본주의적 생각에 사로 잡혀있음을 선언하였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종단 유일의 승려전문 교육기관으로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동국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승려를 위탁 교육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목과하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고 있다. 교육이념과 목적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계를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승가대는 전통 교육방법으로 사찰에서 운영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급되는 재원은 지원금이고, 승가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자금이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어찌 종단 지도부의 안목이랄 수 있는가.

또한 종단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학인 통계와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본교의 1학년 학인 65명 가운데 15명만이 조계종 승려라고 발표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자료를 발표하라. 15명을 제외한 학인이 조계종의 승려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학인에게라도 배워야 할 것이지 스스로 무지를 소리칠 것까지 있겠는가.
총무원 집행부가 어려하기에 불교의 교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종단의 현실을 현 집행부가 끝까지 고집 한다면 우리 불교는 머지않은 장래에 화석화되고 말 것이다.
16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니 그 역사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오늘날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임을 연기법으로 설명하면서 어찌 현실과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인가. 오히려 과제를 제시하는 순수한 학인을 매도하는가.
우리는 종단을 위해, 불조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출가 수행자로서 이 한 몸 바쳐 불교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랴. 영광스런 구종을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 정진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 종단은 미래를 대비하는 승가교육에 투자하라.
- ◇ 종단은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라.
- ◇ 신임주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불사에 전념할 스님을 임명하라.